

네트워크회의  
인권활동가 네트워크 워크숍

기후위기 시대,  
인권의 위협을 마주하고 행동하는 청년들

김채원  
[청년기후긴급행동 활동가]

“기후변화는 21세기 인권의 가장 큰 위협이다.” -메리 로빈슨 인권최고대표

기후위기가 인권의 최대 위기라는 담론이 최근 들어 생겨나고 있다. 기후위기가 인권위기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현재의 기후위기와 이에 대한 피해가 인위적이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데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일로 사고방식에 빠져 인권위기는 인권위기대로, 기후위기는 기후위기대로 따로 다루면서 하나의 통합된 대응방식을 전개 하지는 못하고 있다.

“오늘날 젊은이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기후행동이다.” -쿠미 나이두 그린피스 대표

이런 인권-기후라는 총체적인 위기 속에 청년들이 모여 청년기후긴급행동(이하 긴급행동)이라는 단체가 2020년 1월 만들어졌다. 기후운동의 경우 다른 운동에 비해 대응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가장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에 긴급행동에서는 단체명처럼 ‘긴급하게’ 활동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 사실 기후위기의 해법은 이미 과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나와 있으나 이는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를 전면적인 사회변화로 추동하는 힘이 매우 필요하다. 그러한 맥락에서 긴급행동은 ‘직접행동’을 통해 이런 힘을 만들고자 한다. 그럼 ‘왜 여기서 직접행동이 필요한 것인가?’하는 의문이 들 것이다. 우선 직접행동이란 거대한 권력 앞에 선 개인이나 단체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직관적이고 상식적인 저항방식이다. 즉, 직접 행동은 세상을 바꾸고 싶은 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자 전략인 것이다. 이에 긴급행동에서는 지난 2년 반이라는 시간동안 다양한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해왔다.

이제부터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분절되어 있는 기후위기와 인권위기를 어떻게 연결 지어 함께 대응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모두가 이번 포럼을 통해,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면서 찾아내야하기 때문에 한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활동가의 영역에서 기후와 인권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지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그것은 바로 기후활동가와 인권활동가가 함께 기후위기와 이로 인한 인권위기의 최전선에 있는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보는 것이다. 쪽방촌 거주민, 이주노동자, 농민 등과 같은 이들의 목소리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킬 방법을 함께 찾아보고 이를 사회적 이슈로 만들게 된다면 기후위기 문제와 함께 인권 문제도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